

어르신들 웃음꽃에 어깨춤 절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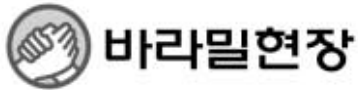
세계 불교 여성지도자들

아웅산 수지 (上)

“♪ ♪ 생신 축하합니다♪”



매달 독거노인 생일잔치 4년째 일심동체로 내세우지 않으며 봉사



정다운회의 '효심불심'

“♪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5월 26일 부산 옹호복지관 2층 강당에서는 케이크, 과일 등이 풍성하게 차려진 잔치상 앞에서 생일축하 노래가 울려퍼졌다. 생일상의 정성은 말할 것도 없고, 복지관 유치원생들의 재롱도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특히 이날은 철순, 팔순, 구순을 맞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한 잔치여서 기쁨이 더해졌다.

이런 아침부터 복지관을 찾아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해 딸처럼, 며느리처럼 꼼꼼하게 생일 잔치를 준비한 보살들은 정다운회 회원들. 벌써 4년째 매월 생일잔치를 열고 있다. 99년 정다운회가 결성되면서 처음 마련된 생일잔치는 이제, 매년 100명이 넘는 어르신들에게 생일의 기쁨을 되찾아 드리는 뜻 깊은 잔치가 되었다.

“혼자 외롭게 사시니까 생신 날은 더욱 외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작은 정성이지만 따뜻한 밥이라도 한끼 대접해 드리자고 시작하게 된 거죠.” 배인숙 총무는 한사코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부끄러워했지만 정다운회가 마련한 생일 잔치는 독거 노인들에겐 생일을 되찾아 준 특별한 선물이자 외로움을 달래는 따스한 사랑이었다.

그러나 처음엔 회원들의 회비만으로 생일상 차리랴, 선물 준비하랴 어려움이 많았다.

각자 떡이나 음료수를 가져오기도 하고, 시장 보고 음식 준비하는 것까지 무엇하나 수월한 게 없었다. 그러나 생일 잔치가 있는 날이면 가게 문까지 닫고 달려오는 정다운회 보살들의 지극한 때문이었는지, 지금은 후원도 늘어나고 식당에서 생신 맞은 분들을 초대해 대접도 할 수 있게 됐다. 회원들의 마음만큼 넉넉하고 풍요로운 생일 잔치를 하게 된 것이다.

동명불원 대불합장단에서 찬불가를 부르며 부처님 가르침대로 사랑을 실천해 보자고 발심했던 정다운회는 처음 10명으로 출발, 지금은 9명이 활동하고 있는 작은 모임이다. 회장은 없고, 편의상 총무라는 직책을 두었지만 모든 회원이 봉사에 임하는 열성은 어느 모임의 회장보다 적극적이다. 지금까지 일심동체로 어르신들의 자식노릇을 할 수 있었던 것도 회원들의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마음이 척척 맞아요. 회원들 마음이 하나가 되니 힘든 줄 모르고 조금 더 정성껏 하자는 생각 하나뿐이죠.” 봉사 날이면 가게는 자동 휴무일이 되었던 서명옥 보살은 이제 가게를 그만두어 마음 편히 봉사할 수 있게 됐다며 환하게 웃었다.

정다운회의 보살들은 정이 많다. 세상에 나누어줄 사랑, 웃음, 행복이 많은 회원들은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직접 방문해, 청소도 해드리고 어깨도 주물러 드릴 계획도 세워두고 있다. “언젠가 나도 늙잖아요? 조금 젊은 내가 미래의 내 모습인 어르신들을 위해 무엇인가 못했어?” 인경이 보살의 말은 정다운회 보살들이 들려주는 불이(不二)의 가르침이다.

부산=천미희 기자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철순, 팔순, 구순을 맞아 잔치 준비에 분주하던 정다운회 회원들이 축하 노래와 물음으로 웃음꽃을 피우고 있다.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상징

“미얀마인들은 자비를 전하고, 실천하며,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선한 마음은 미얀마의 민주화를 돕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웅산 수지의 ‘Shambala Sun’과의 인터뷰 중(중략)

“비운드 랭군’이라는 영화를 보면 주인공 여의사가 남편과 아이를 사고로 잃은 뒤 미얀마로 여행을 갔다가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총과 칼을 든 군부대 앞에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나서는 한 여성을 보게 되는데, 그가 바로 아웅산 수지(66, Aung San Suu Kyi) 여사다.

최근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지 여사에 게 다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미얀마 군부가 지난 5월 30일 수지 여사가 참석한 대중 집회에서 의 유혈 충돌을 이유로 그를 다시 구금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지 여사의 석방을 요구하는 국제 사회의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비폭력 민주화 운동으로 1991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아웅산 수지 여사는 ‘미얀마의 간디’로 불릴 정도로 세계인의 존경 받는 불자다. 정치인으로서 종교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수지 여사는 자신이 참된 불자가 되려고 노력하며, 이러한 자세가 군사정부의 탄압을 이겨내는 힘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다.

“나는 불교 집안에 태어나 불자로 교육을 받고 자라났습니다. 때문에 불교를 나 자신의 가치관과 분리해서 설명한다는 건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부족하지만 제 삶이 곧 참된 불자가 되려는 몸짓이었으니까요.”(1996년 1월 ‘Shambala Sun’과의 인터뷰 중(중략))

수지 여사는 2002년 5월 자택 연금에서 풀려난 이후 이틀간의 성지 순례를 다녀오기도 했다. 그는 평소 존경하던 우 위나야(U Winaya) 스님을 만나뵙기 위해 양곤에서 남동쪽으로 약 100마일 가량 떨어져 있는 카렌 주에 있는 타나나 산을 참배했다. 그는 오랜 가택연금 생활로 친견하지 못했던 우 위나야 큰스님을 뵈고 민주화운동의 방향과 함께 개인적인 신행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것이다.

아웅산 수지는 1945년 6월, 미얀마의 수도 양곤에서 독립영웅으로 칭송받는 아웅산 장군(General Aung San)의 딸로 태어났다. 그녀가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상징으로 존경받는 것은 미얀마 독립의 영웅인 아웅산 장군의 딸이라는 후광도 있지만, 군사 독재정권과 타협하지 않고 민주화를 위해 온 몸을 바친 희생에서 비롯된 것이다. 수지 여사는 15세 때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 공부했으며, 그곳에서 영국인 교수 마이클 아리스와 결혼해 두 자녀를 낳아 기르던 평범한 가정주부였다. 그러나 몸이 불편한 어머니의 간병을 위해 1988년 일시적으로 귀국했다. 당시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민중들의 반독재 시위와 이를 잔학하게 탄압하는 군부의 폭기를 목격한 후, 그대로 민주화 투쟁 대열에 가담하게 되었다.



3월 아웅산 수지 여사의 재구금(아래)에 대해 항의하는 한국내 미얀마인.

그러나 민주화투쟁은 88년 8월 8일 군사정권의 발표로 수천 명이 사망하면서 실패로 돌아갔다. 아웅산 수지는 그때부터 영국으로 돌아가고 고국에서 민주화를 위해 오늘날까지 독재정권에 맞서서 투쟁하고 있다.(계속)

김재경 기자

흥정은 서툴지만 기쁨은 최고

— 운문사학인 스님들 결식아동돕기 바자회 —

“보살님 이견 해와 달을 뜻하는 월성염주예요. 짜게 드릴게요.”

“꼬마손님은 이쪽으로 오셔서 사랑드세요.”

6월 바구니 수행도량인 경북 청도 운문사에서 결식아동을 돕기 위한 바자회가 열렸다. 운문사 학인 스님들이 직접 나서 집시를 굶고 있는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인 것. 1년에 단 한번 여름수련대회 외에는 일반에 공개하지 않던 운문사 만세루에서

염주 등 소장품 2천여점 전시 판매 불자, 관광객 반응좋아 수익금 ‘쏟아'

는 이날 예외적으로 염주전, 다구(茶具)전, 불서전, 선서화 부채전 등 작은 불교용품들이 들어섰다.

만세루의 바자회장에는 운문사 승가대학장 명성 스님, 주지 흥륜스님을 비롯해 대중스님들이 소장하고 있던 염주, 불서, 녹차, 다기 등 2천여점의 불구용품들이 판매됐다. 특히 스님들이 직접 그린 선서화뿐만 아니라 부채와 스님들의 애장품인 난(蘭)화본, 목아박물관 박찬수 관장의 목불상 등은 바자회장을 찾은 불자들의 큰 인기를 끌었다.

이런 행사를 준비한 운문사 승가대 일원스님은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밥을 굶고 있는 아동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 우리 스님들이 해 줄 것이 없나 고민하다가 작은 정성이라도 모아보자는 생각에서 바자회를 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6월 운문사 학인스님들이 바자회에서 서툰 솜씨로 흥정하고 있다.

운문사 학인스님들은 이날 바자회에서 얻어진 수익금을 우선, 인근에 위치한 금천초등학교의 결식아동을 돕는데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지역 복지관 등과 연계해 어려운 아이들을 도울 계획이다.

운문사=박원구 기자

‘미얀마의 간디’로 세계인의 존경 받는 불자

군부 독재와 타협 않고 민주화 위해 희생

제 17기 불교 전문 호스피스 교육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H · O · S · P · I · C · E

- 호스피스?** 죽어가는 사람들을 돕는 자원봉사 활동이 아닙니다.
- 호스피스?** 生 · 老 · 病 · 死 의 직접적인 체험을 통하여 제행무상, 제법무아, 일체개교, 열반적정을 향한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修行의 길입니다.
- 호스피스?** 상구보리 화하중생 대승보살도의 텃밭입니다.
- 호스피스?** 순수한 사랑과 자비를 창조합니다.

정토마을 호스피스 교육의 장은 아주 특별합니다!

교 육 안 내

- ◆ 일 정: 2003년 7월 6일 ~ 2003년 7월 13일 7박 8일
- ◆ 장 소: 충북 정월군 미원면 대신리 산 17-1 정토마을
- ◆ 교육대상: 스님 및 포교사 불교 의료복지 포교에 뜻이 있으신 분, 불교인으로서 삼귀오계를 수지하신 분으로 신심이 돈독하여 보살행을 실천하고자 하시는 분
- ◆ 인 원: 선착순 남 · 여 25명 ◆ 연 령: 32세 ~ 65세
- ◆ 지 함 물: 사진 3장(반명함판), 주민등록등본 1통, 필기도구, 유리컵, 슬리퍼, 컵, 가사장삼(스님)
- ◆ 원서접수: 전화접수, 우편접수, 방문접수
- ◆ 원서마감: 2003년 6월 30일
- ◆ 문 의 처: 정토마을 사무국 TEL. 043) 298-2258(대) / FAX. 043) 298-1457 e-mail: jungtoh1@hanmail.net

아미타호스피스회 정 토 마을 원 장 능 행 합장

제 2 회 불교유아교육을 위한 원장 · 교사 워크숍

동국대학교 부속유치원에서는 ‘불교 · 어린이 · 문화’라는 주제로 불교의 생명존중사상에 기저를 둔 불교생태교육 및 정신과 신체의 조화로움 발달과 유아의 불교미술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아래와 같이 워크숍을 개최하오니 참석하시어 뜻깊은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려

- 일 시: 2003. 7. 19(토) ~ 20(일)
- 장 소: 동국대학교 부속 유치원 (경주시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내)
- 강의내용:
 - 사회변화와 유아교육의 과제 (김중서 - 서울대학교 사범대 명예교수)
 - 일본 유아교육현장의 문화적 접근 (陳省仁 - 일본 홋카이도대학 교수)
 - 음악을 이용한 창의적 움직임 (나 정 - 한국교육개발원 유아교육팀장, 문무경 - 서울대학교 강사, 안소영 - 숙명여자대 강사)
 - 유아를 위한 창의적 불교 미술문화 감상 및 창작 워크숍 (이수경 - 동국대 부속유치원 원장, 이주연 - 경인교육대 교수)
 - 문화이해를 위한 멀티미디어 자료제작의 예 (김옥민 - 동국대 불교아동학과 강사)
 - 유아 공교육 개념 및 유아교육법 안내 (나 정 - 한국교육개발원 유아교육팀장)
 - 신라 문화의 이해 (김호상 - 동국대학교 박물관 연구원)
 - 불교생태유아교육의 이론과 실제 (이부미 - 중앙대학교 강사)
- 접수기간: 2003. 6. 2(월) ~ 6.27(금)
- 참가비: 69,000원(교재, 교육자료, 숙식 포함)
- 신청문의: 054) 770-2533 ~ 35, 771-1020 ~ 1022
- 홈페이지: www.donggukak.co.kr



동국대학교 부속 유치원